



소의 해는 소처럼

글 · 신현득(불교아동문학회 회장)
그림 · 최주현



소의 해에는 소처럼 일하자는 말 붙여야 인사 돼 환희수와 대의동차처럼 부지런히 공덕 짓기를...

소의 해는 특별한 해입니다. 새해 인사에 '소처럼 일합시다'라는 말을 곁들이거든요.

다른 해에 이런 말을 했다가는 큰일납니다. 토끼 해에 '토끼처럼...' 하든지, 호랑이 해에 '호랑이처럼...' 하든지, 쥐의 해에 '쥐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소 해에는 소처럼 일하자는 말을 덧붙여야 인사가 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처럼 일합시다."
이것이 소 해의 바른 인사입니다.

우리 절 종소리로 지구촌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법당은, 새해 새벽예불에 참가할 대중들로 붐빕니다. 도량식이 끝나고, 범종을 울려, 지구별에 새해 새날이 밝아 오음을 우주에 알립니다. 종소리가 삼십삼천을 향해 수미산을 오르는 사이에 예불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이 새해 인사를 올리고, 스님과 신도들이 합창으로 새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스님의 인사도 별다른 게 아닙니다.

"우바새 우바니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불기 2553년, 단기 4342년, 기축년, 소의 해입니다. 소처럼 부지런히 공덕을 지읍시다."

그리고 스님은 소를 칭찬하는 법문을 시작합니다.

"소라는 증생은 참는 힘이 있습니다. 소라는 증생은 부지런합니다. 참음은 인욕이요, 부지런함은 정진입니다. 우리는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을 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세계의 살림이 기우는 공황을 겪었습니다. 소의 해, 금년은 참고 부지런히 일해서 나라와 지구촌의 살림을 일구어야 합니다. 소처럼 참고 소처럼 부지런히 일합시다."

부처님은 참음과 부지런함을 가르치기 위해 증생에게 들려줄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스님이 대신 이야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히말라야산에 산불이 있습니다. 새와 짐승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환희수라는 영무새가 불을 끄겠다고 나왔습니다.

"산짐승, 산새들이 산불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들을 구해줘야 한다. 불을 끄자. 짹짹!"

작은 영무새가 팔자기 개울로 날아갔습니다. 날개를 물에 적셔 와 불무더기 위에 물을 뿌렸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천신의 왕 제석환인이 하늘에서 영무새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환희수가 가소롭구나. 네가 날개를 적신 물로 수백 리에 뻗은 불줄기를 끌 잡아!"

"신의 왕이시여, 부지런히 힘쓰면 내 작은 날개로도 불을 끌 수 있을 겁니다."

영무새 환희수는 대답을 하면서도,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왕 제석이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도와 줘야겠는 걸."

제석환인은 히말라야를 소나기구름으로 덮었습니다. 천중에 번개를 터뜨리며 비를 내렸습니다. 산불은 금방 꺼졌습니다.

- 바다의 신이 대의동자가 가진 보배구슬을 빼앗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동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물을 퍼내어 구슬을 찾고 말 거다." 동자는 작은 그릇으로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다의 넓이는 엄청나다. 깊이만 336만 유순이아. 네가 어떻게 이 많은 물을 퍼내겠니?" 하고 바다의 신이 말했습니다.

"이 생에서 다 못하면 다음 생에서, 그래도 안 되면 그다음 생에서 계속할 것이요. 그래도 안 되면 다시 그다음 생에서까지 바다의 물을 퍼내어 내 구슬을 찾을 것이요."

대의동자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닷물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절반 줄자, 겁을 먹은 바다의 신이 빼앗은 보배구슬을 돌려주었습니다.

"부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재미있네요."

"소처럼 일하자는 게 기축년 첫 법문이며, 새해의 화두입니다. 정말 소처럼 부지런해야 돼요. 영무새 환희수가 날개를 적신 물로 산불을 끄듯, 대의동자가 바닷물을 퍼내어 보배구슬을 찾듯 해야 합니다." 스님은 말씀을 이었습니다.

"무엇이 부지런함이며, 무엇이 참음일까요? 계엄을 없게 하세요. 앉거나, 걸거나, 서거나 생각을 바꾸지 마세요. 바른 길로만 나아가세요!"

모두가 소의 해를 맞으며 새해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펼쳐놓고 볼까요?

여기는 중동의 두바이입니다. 사막의 나라에도 새해가 왔습니다. 소의 해 기축년입니다. 한국의 젊은 일꾼들이 세계의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마천루를 세우고 있지요.

일하는 젊은이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소의 해다. 소처럼 부지런히!"

이 사막 나라에 태극기가 한 번 필력인 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 제일의 마천루! 층으로는 160층, 높이로는 620미터, 이름은 '버즈 두바이'입니다.

다. 쳐다보면 가물기름한 높이입니다. 그 꼭대기에 새해의 깃발 태극기를 올렸습니다.

여기 일꾼들이 고국동포에 보내는 인사를 들어볼까요?

"나는 여기 사막의 나라에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고국의 동포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소의 해에 황소처럼 일합시다..."

사막에서 이런 한국인의 기적은 이뿐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사막에서도 커다란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태극기 한번 필력인 것이 기적의 시작이었다 합니다. 한국인의 손으로 사막을 가로질러 물길을 연 것입니다.

물길이 트이면 풀밭이 생기고, 풀밭이 생기면 농토가 생기고, 농토가 어우러져 들판이 됩니다.

들판에는 온갖 곡식이 익고, 숲이 생기고, 곤충과 새와 짐승이 모여들고, 벌레 소리, 새 소리, 짐승의 울음이 어우러지게 됩니다. 한국인의 손으로 기적의 땅을 이룬 것입니다.

태극기의 기적은 바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서해바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연장 21.27킬로미터,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긴 인천대교가 바다에 놓인 것입니다. 소 해의 첫 소식입니다.

인천대교를 이룩한 아저씨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동포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소의 해입니다. 소처럼 일을 합시다. 기적을 이룹시다.>

어디를 가도 소처럼, 소처럼, 합니다. 골목의 붕어빵 아줌마도 소처럼 일할 생각입니다. 붕어빵을 사러 오는 꼬마들에게 말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 소처럼 부지런히 공부해라." 운전기사 아저씨도 새벽부터 승객을 맞으며 인사합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소처럼 일합시다."

이때, 외양간 소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음무우 음무우, 올해는 소의 해다. 우리의 해다!" 닭장의 꼬꼬 무리들이 축하의 목소리를 맞추었습니다.

"꼭꼭 꼬오, 올해는 소의 해다!" 돼지우리 꼴꼴이도 축하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소의 해를 축하한다. 꼴꼴꼴." 염소도 매애해해, 소리를 쳤습니다.

새해 첫날 손에는 대문 앞에 새해의 깃발을 달았습니다. 새해의 바람에 깃발이 휘날립니다. 기분 좋은 새해 아침입니다.

"올해는 소의 해다. 소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해. 오늘은 좋은 먹이를 듬뿍 넣어서 쇠죽을 끓였지." 아버지가 깊이 킁킁 나는 쇠죽을 외양간 구유에 수북 담았습니다. 소들이 생각합니다.

"옛적에는 우리가 수레를 끌었지. 밭갈이, 논갈이를 우리가 맡아 했었지. 보리와, 벼를 거둬들었지. 연자방아를 돌렸지. 산에서 땀나무를 날라다 나뭇가리를 만들었지. 지금은 이런 일을 기계가 거들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많거든."

어미소, 작은소, 송아지... 소의 가족은 쇠죽을 움뻑뻑 먹었습니다.

2009년도 입학생 모집 요강

유마사 승가대학에서는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유마사승가대학 개원 입학시험 안내]

자 격	2008년도 가을 수계자까지 (타 승가대학인 경우 1년이상 된 학인)	
모집인원	사미니과 00명	
편 입 생	사교반, 사집반 00명	
시험과목	면접	
제출서류	1.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3.은사스님 추천서 5.최종학력증명서 1통 7.본인 법령 도장 및 의제착용한 반명함판 사진 3매	2.은사스님과 본인의 승려증사본 4.주민등록증 사본 6.자필이력서
준 비 물	만의, 장삼, 사미니증, 비구니 승려증	
원서접수	2009년 1월 14일까지 (2008년 음력 12월 19일까지)	
도착일시	2009년 1월 14일 (음력 12월 19일) 오후 5시까지	
시험일시	2009년 1월 15일 (음력 12월 19일) 오전 7시부터	
교 통 편	광주 광천터미널에서 유마사행 시내버스 217번 (하루 4번 운행) (217번버스 : 중점 (화순사평)에서 - 택시 (20분) - 유마사)	
문 의 처	061)374-0050 / 핸드폰 011-9981-3810 (강원을 오래전에 중퇴 하신분도 환영합니다) ※ 전화하시면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유 마 사 승 가 대 학 학 장

하늘의 기운, 신의 승결, 조상의 지혜
천년 역사의 전통

槐 槐 黃 黃 紙 紙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제품 고향지는 왜나무(일명 귀신나무)의 꽃과 열매(풍갈은것)을
당년 7월7석(전삼일, 후삼일)에 소승이 직접 채취(강원도 영월)하여
그늘에 잘 말린후, 동지날(전삼일, 후삼일)에 즙을 내어 그물로
9번 순수 한지에 물을들여 건조시키는 까다로운 물건입니다.
작업시에 발생하는 역한 냄새와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가정에서는 제작하기 어렵고 그 때문에 대용품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저자물들인 창호지로 그 용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승은 옛 선사님의 비법 그대로 순수 막나무로 수작업한, 전주한지를
업선, 정확히 9번 물을들여 건조하였음을 부처님의 제작로써 인정하며,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제작되지 못하는 점을 양지하시어 미리
주문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주문처: 전북 장수군 계곡면 농소리 589번지 동편암
관봉 합장 (063)353-1232 / 010-6229-0108
동원: 507079-51-012924(예금주:이장주)
E-mail: m3531232@hanmail.net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12권 출간
전 30권중 제 12권 출간!
전통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곁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중사의
안목으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달다 전강 대선사 범어집 값 15,000원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의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쳐난 삶.
전강 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았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경법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경법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